



운명애(運命愛)

황 용 식

- 1944년 5월 생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 튀니지 대사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전)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장
- (현) 주 타이베이대표부 대표

I. 처음에

S형으로부터 합격기를 써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주책으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가위 낙방경력 기록보지자라도 될 내가 불합격기가 아닌 합격기를 쓴다는 것이 후안무치(厚顏無恥)같기도 하려니와 참패의 연속인 전적은 상흔처럼 회고하기조차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남달리 장기간에 걸쳤던 수험생활을 공개하고 그 사이에 느꼈던 수험에 관한 내 나름대로의 소견을 솔직하게 피력하는 것은 이 길을 택한 여러 수험동지들에 대한 의무도 된다는 생각에서 감히 붓을 들었다.

II. 외시에서의 도전

내가 의무직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는 남들처럼 외교관생활의 화려한 꿈을 꾸어서 택한 길도 아니요, 또한 자신에게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도 아니다.

법대에 입학하자 갑자기 맞는 너무나 큰 자유와 해방감속에 도취되어 어물쩍 Freshman의 생활을 보내고는 남들처럼 부지런히 법률서를 읽어왔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많은 회한과 고통의 씨앗이 될 줄을 내 어찌 예상했으리요?

대학 4학년때부터 보는 사법시험은 매년 연중행사가 되었고 나의 법률서적은 이제 말뚝색깔을 지나 초코렛색화했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 초조하고 능력은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았다. 더구나 견디기 어려운 일은 이제 법률책만 대하면 골치가 아프고 잡념이 떠오르는 것이어서 하루 10시간정도를 책상에 앉아 있어 보았자 실제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은 서너 시간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았고 합격에 대한 신념은 점점 없어져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학공부를 병용하기로 작정하고 가능하다면 3급외무직시험을 보기로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외무직을 택한 것은 하나의 돌파구를 모색한데 기인한 것이다.

심기를 일전하기 위하여 틈틈이 읽은 The moon and six pence라든가 Lady Chatterley's lover, Time지, Der Arzt Gion 등등은 처음에는 오로지 나의 gloomy했던 생활에 하나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학을 생소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느껴졌다.

대학 1학년때 조금 배워두었던 불어도 avoir, être동사의 변화까지 새로 외워야 하는 정도였지만 새로운 분야에 몰두하는 것은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청량제가 되었다. KBS제2방송의 중국어강좌도 하루 15분간 약 2년을 취미삼아 들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상당한 정도까지 나갈 수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알파한 어학실력을 가지고 국제법, 경제학, 외교사 등은 기본서 한권을 각각 두세 번 읽고서 내가 외도를 한 것이 1972년이었다. 스스로가 비웃을 정도였지만 막간을 이용해서 show나 한번 해 보자는 심정이었다고 억지로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olympic정신을 결부시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선택과목 모두를 외국어로 택하고 근 30회독을 한 민법총칙을 택하지 않은 것은 법률과목시험이 70점을 넘다가도 그 다음 시험에 50점 이하로 낙하하는 경험에 대한 하나의 반항의식이었다. 좌우간 그리하여 show는 막이 올랐고 그런대로 나의 최선을 경주했다. 그러나 불어시험에서는 정말로 곤욕을 치렀다. 작문하는데 공권이라는 단어를 avion port라고 쓸 정도였으니까.

채점자에게 무척 미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다리 더 걸쳐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자위했다. 결과는 물론 뻔했으나 중국어 점수가 예상외로 63점이 나온 것이 수확이었다.

1973년에 사시가 여름으로 연기된 것이 외무직 시험에 심적부담없이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전번의 시험에 비추어 어학은 작문이 점수차이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작문연습만 하도록 하고 불어대신에 민법총칙을 택하기로 했다. 불어를 선택해서는 다른 과목을 보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저히 불감당일 것 같은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시험전 두달은 국사, 외교사, 국제법, 경제학만 보기로 작정했다. 언어공부

는 해 봤자 가득울에서 아무래도 암기를 요하는 과목에 비추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합격될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1차시험이 작년 것으로 유효했지만 원서를 2분 출제해서 1차도 한번 더 응시했다. 1차시험에서 헌법과 행정법은 90점 이상이 자신 있었지만 내년의 만일을 생각해서였다.

드디어 2차시험기일이 왔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꼭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있는 태도를 가지고 썼다. 국사의 인쇄술에 관한 문제는 평소에 약간 유념해 두었던 바 있었으나 최씨정권하의 권력구조는 초등학교 때부터의 실력뿐이어서 최씨정권의 성립·발전과 그 권력구권의 비평까지 부연했으나 모자라는 실력은 답안의 불균형을 초래했다(53.66점).

국제법에서 유엔총회와 안보리의 비교문제는 교과서의 국제연합편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분쟁의 평화적 처리, 안전보장의 면에서 서로 기능을 달리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 썼다(64.66점).

경제학의 Inflation의 종류와 우리나라 물가정책을 논하라는 문제는 원래 경제학 지식이 관악 한테다가 내가 기본서로 택한 이정환씨 책에는 인플레이의 종류로는 억압형이니, 개방형이니 하는 것밖에 다루지 않아서 어쨌든 과락이나 면하자는 심정으로 문제집에서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전쟁인플레이, 환인플레이 등을 설명하고는 인플레이를 국민소득의 면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물가정책의 문제는 국제수지의 면에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조심스럽게 적어나갔다. 그리하여 경제학은 2문 다써보았자 4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61.33점).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외교사에 있었다. 법대출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교사였는데 나역시 그래서 동양외교사는 볼만한 책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국사지식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다행히 서양외교사편은 Bismarck에 관한 것은 평소 외교사의 가장 흥미있는 부분으로 여겼고 여러 동맹조약을 대충 정리해 둔 바 있어 무난했으나 스테프-카스타 협약은 외교사시험이 있던 날 아침에 대학입시를 준비했던 동생의 국사정설을 뒤적이다가 보니 포츠마스조약에 관해서 카스라협약을 각주로 설명한 것이 눈에 띈었는데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다. 시험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나중에 점수나 알아보자는 뻔장으로 나의 국사지식을 총동원해서 Noah의 홍수부터 쓰겠다는 기분으로 러일이 한반도에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을 상술하고 이러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판까지 했다. 중요한 부분인 필리핀문제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빠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가 많은 원조를 해 주었는지 성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다(62.66점).

영어, 독일어는 그 사이 작문을 대비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으나(영어 66.23점, 독어 72점) 중국어는 작년보다 무척 어려워 해석문제에서도 일청간의 조약문이

나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다(59.33점).

민법총칙은 사시때와도 달라 법전을 주지 않아 불편이 있었으나 학교에서 자주 다루었던 문제이어서 취소권은 계약편의 해제·해지와 상이점까지 언급할 수 있었다(66점).

시험을 마치고도 큰 기대는 없었으나 그저 후련한 느낌이었고 이틀정도 쉬고는 다시 법률서적을 싸들고 아현동 국립 도서관으로 나갔다. 그러나 막상 합격발표일이 가까워오니 한번더 선고를 받게되는 불안감이 차차 고조되어 움을 느꼈고 집안일로 대구에 내려간 그날 서울서 합격을 알리는 친구의 장거리 전화를 어머니가 받으시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전해 주시었다. 그 슬한 불합격이 통보 때도 그랬지만 합격이라는 소리에도 그저 덤덤하기만 했다. 아! 이게 내자신의 운명이었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는 지난날의 괴로웠던 일들이 panorama처럼 너리를 스쳤다.

졸업하고 1~2년 동안 격하기 잘했던 시절의 남몰래 흘린 눈물들, 간염으로 대학 병원에 세 번째로 입원하신 아버님을 두고, 동생에게 하숙집의 전화번호만 가르쳐 놓고 대학가에서 하숙하고 시험지던 것, 그때 어머니는 끝내 아버님의 운명소식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셨고 내가 귀가 했을 때는 이미 빈소를 차려 놓은지 오래였었다. 그때의 통곡! 그뒤 또한 느닷없이 나타나 산소를 쓴 땅을 다시 사야한다는 사람과의 4개월을 끈 소송, 대낮에도 킁킁했던 법원건물,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 amor fati(운명에 대한 사랑)! amor fati! 하고.

III. 보람과 희망

고시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은 정신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가장 호조에 있고 패기에 넘쳐 있을 때의 약 2년간 최고의 pitch를 울려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합격하는 것이다.

사실 고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합격한 사람들도 자기 답안지를 한구절 한구절 들여다보면 평소에 깊이 연구해 두었던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이 과연 학문상으로나 논문의 짜임새로나 부끄럽지 않을 만한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나의 경우는 두 번 다시 읽어 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시험이란 제한된 시간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능한 요령있게 표현하여 채점자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결과는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 서로를 비교한 상대적 평가이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수준을 결코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년정도 열심히 공부하여 응시한 결과 나타나는 성적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후에 공부를 계속하였다고 필연적으로 보다 나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님은 필자가 경험한 바였다. 다만 자기가 더 깊이 연구하고 응시일자 근래에 읽어두었던 문제가

나와 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부여받기 위하여 응시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교수님은 고시합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서 순간적으로 독에 물이 찰 때 합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어쨌던 최초의 박력있는 돌진으로 합격하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부득이 수험생활이 장기화해 버린 데 있다. 물론 필자도 그중의 한사람이지만, 여기에는 그야말로 수난의 시절이 따르는 것이다. 장기화된 수험생활은 해가지남에 따라 mannerism에 빠지기 쉬워 처음의 박력이 감퇴되어 질 뿐 아니라 자의에 의한 어령(圍籠)의 생활이므로 정신적 위축감을 동반하고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험자 자신이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확립을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수험에 임해야지 불안과 초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수험생활에는 꼭 규칙적인 생활을 권하고 싶다. 필자는 오랜 수험생활 동안 10시 취침, 4시 기상의 원칙은 고수했는데 그것이 습관화되자 저녁 10시이후에는 아예 책을 본다는 것이 도로(徒勞)에 불과하여 하나도 머리에 남지를 않았다. 새벽에는 5분정도 맨손체조와 아령을 했는데 이러한 생활이 항상 64Kg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수험장소로는 학교도서관, 집, 절, 사설독서실 등을 다 유람하다가 나중에는 아현동 국립도서관을 이용했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편의를 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떤 장소가 반드시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수험동료와 대화가 단절된 곳에 너무 장기간 틀어박혀 있는 것은 단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물론 작당해서 심심할 때나 공부한다는 식이 되어버려서는 안되겠지만 동료들과의 대화는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자기반성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서 선택에 대해서는 자고로 여러분들이 소개하신 것이 있으므로 생략하지만 한 가지 필자경험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 책을 보는 것보다는 기본서를 철저하게 소화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읽어서 이해한다는 것과 막상 백지에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천양의 차이가 있다. 여러 책을 보아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득점에 별로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도 확실히 모르는 것을 표현해보았자 채점자가 보완해서 읽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당연히 감점사항이 될 뿐이다.

잘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어슴프레 알고 있는 것 이것저것을 적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어서 감점을 최소한 막아내고 다른 과목에 득점을 기대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그리고 기본서는 될수록 바꾸지 않아야 한다, 이 책이 저 책보다 좀 더 잘되었다고 하여 이미 몇 번이나 읽은 책을 쉽사리 바꾸는 것은 그만큼 쌓아올린 노력을 방기한 결과가 된다.

한두 번이라도 읽었던 책은 그만큼 무의식중에 그 책의 문장이나 시각적 효과가 뇌리에 박히는데 그 자산은 모두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미흡한 부분은 여백에 보완하거나 그 부분만 노트를 해 두는게 좋다. 필자는 한때 한 민법의 기본서를 유행에 따라 다른 저자의 책으로 바꾸었다가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깨닫고 원상복귀한 적이 있다.

서브노트의 유용성에 관해서 왈가왈부 있지만 필자는 노력에 비하여 소득은 적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처음 작성할 때는 일대저작이라도 한 듯한 기분이지만 나중에 자주 불만이 생기고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버릇을 낳아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종합하여 검토하지 못하고 당황감을 더 크게 하는 감이 있었다.

외무직 시험에 있어서 어학은 평소에 해 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독해력문제는 틈틈이 원서나 소설 잡지를 읽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 단어실력은 그때그때 노트를 해서 자주 눈에 익히는 방법이 암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았다.

문제는 작문인데 영어의 경우 영어신문의 사실 정도의 문장을 자주외어 두는 것은 자유작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제2외국어는 틈나는 대로 문장을 노트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특히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 생소한 문제에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다.

그리고 답안 쓰는데 시간배정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한 문제당 6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뜻하지 않게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골격만을 쓰고 다음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 문제에 더 써서 얻을 점수보다 다음 문제에 골격도 못써서 읽을 점수가 더 크다.

특히 어학시험에서 작문의 시간배정은 미리 충분히 해 두고 나머지 시간에 독해력 문제를 마치도록 해야한다. 해석을 잘하려고 시간을 너무 써서 작문에 손을 대지 못한 분을 간혹 보는데 이것은 천하의 명해석이라도 그 시험 점수는 50점이하이다.

또한 논점식문제는 5분내지 10분간 골격이 되는 단어라도 간추려서 초안지에 적어놓고 써나가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알고 있는 것도 쓰지 못하면 득점되지 않는

데 그런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IV. 마침표를 달고서...

나는 원래 법조계를 희망하였다가 외무부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막상 외무부에 발을 들여 놓은지 반년이 지난 지금 내가 택한 길에 대한 후회는 없다. 경제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점 외에는 외무부의 분위기 인간관계가 자유스럽고 또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항시 세계를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것 등은 나에게 많은 의욕감을 주고 있다.

끝으로 private한 이야기지만 이 글을 쓰면서 그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문자 그대로 헌신적으로 돌보고 믿고 아껴주시던 어머니와 누님내외분 그리고 동생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불효자식의 합격을 끝내 보시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신 그 성실하고 치밀하셨던 아버님의 영전에 삼가 이 글을 바친다.